



위 아래를 한 주먹에 쥐고 들고 낼 수 있어야



그림 · 최주현

이고 하니,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생겨난 것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분지복은 자기가 가지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그 씨를 무조건 의심을 하고 나가기 이전에, 의정을 만들어준다 이리기 이전에 무조건 자기 수박 속에 씨가 있다는 거를 미리 믿고 들어야 한다 이거죠. 거기서 의정을 낼 때는 스스로 의정이 나는 거하고 만들어서 의정을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수박의 모든 것,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더라도 그 수박에 의해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내고 들고 고 하는 거니까 하면서 거기에다 놓고 가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침착하게 무심(無心)으로써 수박 씨를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도(無心道)로서 그 수박이 싹이 나가지고 길러져서 거기서 수박이 열려가지고 그 수박이 무르익어서, 여러분한테 그저 내주어도 좋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이 자라나게 되죠. 아마도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정정(淸淨) 자재천궁(自在天宮)’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도리를 지금 이렇게 알고 또 거기다 놓고 갈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점수(漸修)나 돈오(頓悟)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또 내 씨가 진짜 있다고 믿고 거기 놓고 돌아갈 때, 스스로서 들이 아닌 도리가 나오고 거기서 유(有)와 무(無)의 세계가, 이 세상이 우주에 그냥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서야 의정, 대의정이 나는 겁니다. 그때 의정이 적든 크든 다 나는 거지, 내가 우정 의정을 내서 의심하는 것은 그거는 빈 깃털에 물건 넣지 않고 그냥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으로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우주 법계에 두루 할 때에 저런 화상에도 그렇고 탄혹성에도 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재 요건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지금 이 세계가 서로 알기 어렵고 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조절하고 조절치 않고, 떼어냈다 붙였다 붙였다 떼어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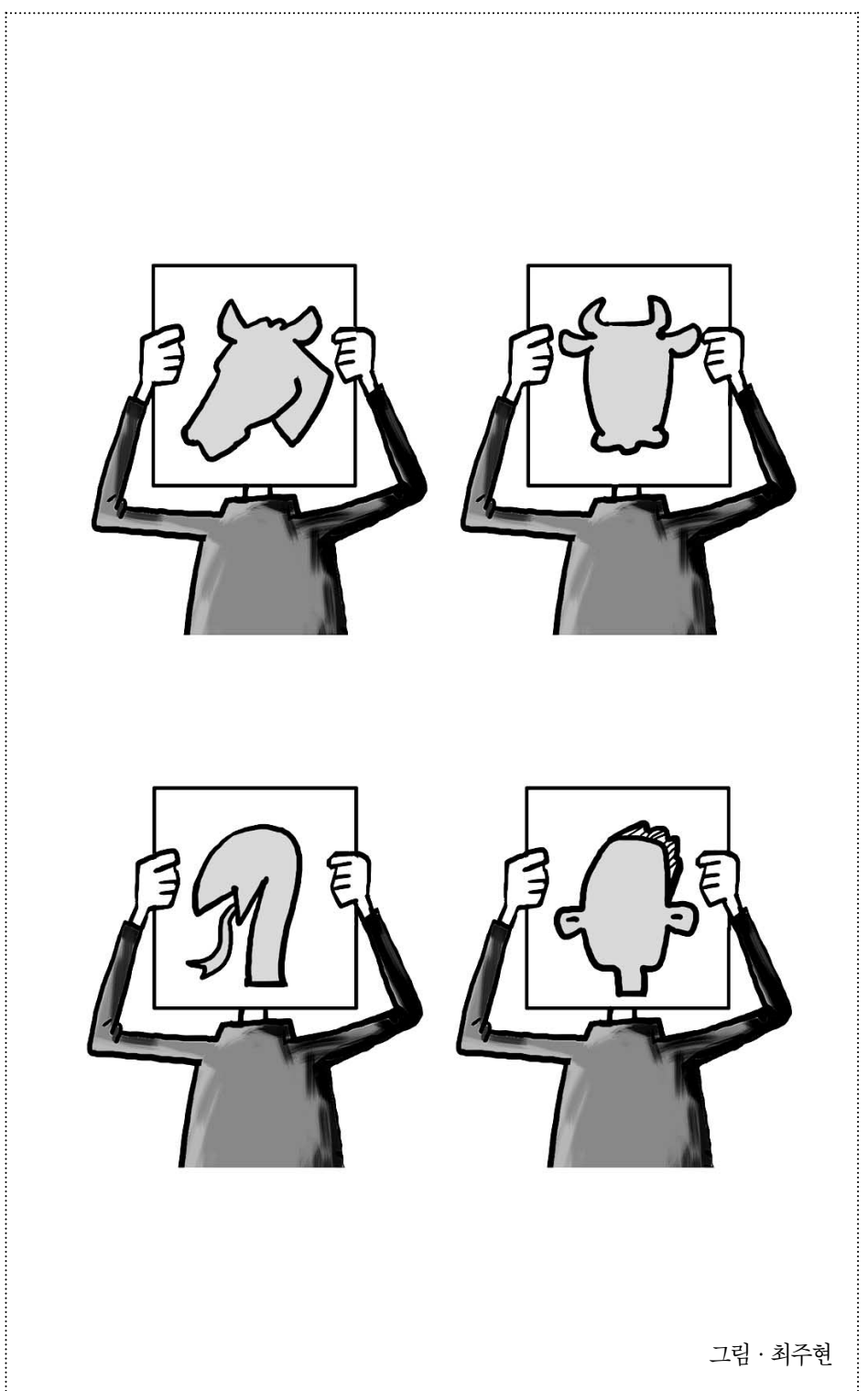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공생(共生)·공용(共用)·공제(共體)·공식화(供食化) 하고 있고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 한자리를 하고 있는 까닭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로서 서로 헤어졌다가 만나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도 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만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분절하게 다니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만방에 다 도제양성(道弟養成)이 시급한 시대라고 봅니다. 타력신앙으로써 기복(奇福)만 맹종하고 항상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이라던 광대무변한 인간의 도리 또는 법신(法身)의 도리, 부처될 도리로서 해나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등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체제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리드해가면서 세계를 조절해 나간다면 지금 공산주의나 중도나 월가월부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평화롭게 정상적인 체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하고 또 의학도 발전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 문명을 다 꽃피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반면에 뭐든 오염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나 여러 생물이 오염으로 인해 그냥 스러져가야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친다면 인간다운 도리를 못하는 우리를 어디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한 철을 지나다가 가지지만 그 시기에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듯이, 이거는 아주 고고한 말이 아니라 무식하지만 순박한 얘기로서 한마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작년 씨를 심어서 올해 추수를 해 들이듯이 여러분이 다 수박이라면 작년 씨로써 수박이 된 거지 작년 씨가 없이 어떻게 수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은 작년 씨로 인해서 수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나 물어보십시오. 작년 씨를 바깥에서 찾을 수 있겠냐? 바로 씨와 살과 껍질이 다 한데 합쳤습니다. 흔하디 흔한 수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있지 만 데 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저런 식물이나 또는 흙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또는 공기의 생명도 다 이 씨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근본 원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발견하자 할 때는, 수박은 자기 안에 들은 씨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 수박을 일체 중생에게 다 먹이고 또 그 씨가 되어서 그 씨를 또 심고 또 먹이고 또 심고 또 먹

고 그것을 리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의 주먹 가운데에 딱 들어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불법은 어느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까 하는 한 번 가리키고, 땅을 한 번 가리키고, 주먹을 한 번 쥐어서 보이고, 땅을 땅 찢던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천지, 천지, 삼라만사세계를 한데 합쳐서, 딱! (주먹으로 법상을 치시며) 한 군데 찢은 겁니다. 여기밖에는 없다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들고 내고 작용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작용이 중용이며, 중용이 바로 이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불국토를 만들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남의 흥래를 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편지를 해서 책 낸 걸 그냥 보고 한다면은 그런 의의가 없습니다. 당나라 때에, 거기 유학을 갔던 자장 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좀 쉬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딱 땅에 앉아서 주섬주

섬 책을 꺼내서 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길을 지나다가 하는 소리가 “별놈의 중 다 보겠네. 백지를 볼 줄 알아야 붓대를 굴릴 수 있고, 붓대를 굴릴 수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지 않나.” 하면서 “입으로만 쪼다가 몸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것을 말이야. 참 별놈의 중 다 보겠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야, 이놈의 것!” 하고 그냥 책을 탁 집어서 놓고는 말합니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놈은 자가지고 스님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별놈은 여기 있군.” 그리고선 그냥 탁 놓고는, 그 종남산이라는 기슭에 문수사리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속을 가라앉히고서 그 문수보살상 앞에 가서, 천일을 작정하고선 관(觀)했답니다.

얼마를 지나서, 뭐 천일을 생각했지만 천일이라는 생각도 없이 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야! 문수가 나고 내가 문수지, 문수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는 순간 옆에서 어느 노승이 말합니다. 지팡이 짚고 왔던 걸로 탁! 탁! 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라면 나한테 네가 내 주장자를 전하노라.” 하

더랍니다. 자기가 자기 주장자를 자기한테 전하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지팡이보다가 자기 머리를 땅 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냥 소리가 요란하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가 요란해서 쳐다보니까 아, 거기서 사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리를 받아들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는 석존의 그 사리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사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가사(袈裟) 한 벌은 부처님께서 입으셨던 것이다. 이 유물은 바로 부처님께서 간직하시고 계시던 거니 너희 나라에 가서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잘 간직하라.” 하고선 주더라고요.

참 아주 기쁘고 춤도 추고 싶은데 얼떨결에 공손히 받아서 놓고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그냥 절을 툭툭 하다보니까 아, 절을 하고 일어나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서 보니까 온데간데가 없거든요. 그래도 절 하던 거니까 삼배를 마치고서 그걸 공손히 들고, 문수보살상을 몇 바퀴 돌다가 보니까, 지팡이로 머리 때렸던 자리가 그냥 흙집이 나서 땅 뚫렸거든요. 그 머리 상 처한 부위를 보니까 똑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 혼잣말로 ‘허허, 문수보살이 화(化)해서, 화신으로서 이걸 전달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아주 당당해지고 그렇게 땀땀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신라로 와서 참, 월정사나 통도사나 마곡사나 저런 절을 짓고서 거기다 사리를 모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리를 모시고 도제양성을 하기 위해서 참, 자장 율사가 마곡사에서 설법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꼭 찾던 말입니다. 그냥 모두 모여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삼 ‘마(魔)’자를 쓰고 골짜기 ‘곡(谷)’자를 써서 마곡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름 지은 게